

정영신 메드빌연구소 소장 천연물질서 **금맥** 찾는다

글_유지영 과학신문기자 jyryoo@sciencenews.co.kr

“경 동시장에 널려 있는 한약재가 모두 보물로 보여요. 하나 하나 물질을 추출하고 그 기능성을 확인할 때마다 두근거리죠.”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바이오벤처기업 메드빌 연구소의 정영신 소장은 천연 기능성물질이야말로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한다. 이미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는 화학물질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우리 연구진과 기업이 설자리는 극히 작다는 것이다. 반면 한반도에 자생하는 식물 등에서 얻는 천연물질은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진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좁은 그의 사무실에는 갖가지 약초와 식물 표본이 담긴 비닐팩들이 널려있었다. 그 중에는 ‘경동시장’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들도 적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약초들이 모이는 경동시장이야말로 그의 보물창고인 셈이다.

3년 만에 ‘우수실험실인증’ 획득

한약재나 한반도에 분포하는 천연물로부터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 게 그의 일이다. 이미 항당뇨성, 간기능 개선, 항암성 등의 천연물질을 개발해 상품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 그의 연구실에서 나온 성과물들이 상품이 된 셈이다. 정 박사는 이 때 가장 큰 희열을 얻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로부터 우수실험실인증(GLP)을 획득한 것은 최고의 자랑거리다.

GLP는 국가로부터 그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고의 실험시설과 함께 최고의 실험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작은 벤처기업으로서는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다. 때문에 처음 도전했을 때 응원의 목소리만큼 걱정하는 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식약청의 비임상시험관리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은 국내에서 12곳밖에 없을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 인증을 받은 곳도 메드빌을 비롯해 6곳에 불과하다.

“처음에 GLP에 도전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만류하시는 분도 적지 않았죠. 괜한 힘만 빼는 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하지만 저는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실력으로 극복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 박사는 이 일을 일개 기업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는다.

“일단 매니지먼트를 맡게 되면, 한 개 연구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수익을 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죠. 이런 점에서 GLP 인증은 기업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도 대견스러워요.”

GLP 인증을 위해 근 1년을 꼬박 매달렸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의 연구성과도 필요해 본격적인 작업 이전에 논문발표 등 착실한 준비도 잊지 않았다. 사전준비 기간까지 따지면 약 3년을 GLP에 공을 쏟은 셈이다.

최근에는 두릅에서 당뇨성 백내장을 억제하는 신기능 물질을 추출하는데 성공해,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폐암, 전립선 암 등에 효과가 있는 항암 물질, 전립선비대증 치료 물질 등 건강식품이나 약품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 물질들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메드빌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바이오벤처의 전반적인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메드빌이 40년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축적한 기술력의 힘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반물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이것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한 기업의 연구소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하다.

“인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터”

정 박사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에 있

는 터프츠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독특하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여성은 가정학이나 인문학을 선호하는 경향이었고, 식품영양학도 현명한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는 관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던 때였다.

그러나 정 박사는 영양학이 결국은 인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전공을 선택했다. 당시 그의 희망은 의대나 약대에 진학하는 것이었으나, 의사라는 직업이 여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막연한 사회적 통념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약물이나 식품이나 모두 인체내에서 대사되고, 또한 결국 인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진부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인간 삶의 질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기업 연구소는 그의 이런 소망을 이루는 중요한 터전이다.

“처음엔 무작정 교수가 되고 싶었지요.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기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 박사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학위를 받은 대부분의 여성과학자들이 교수직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한 직업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는 풍토에 우려를 표한다. 오히려 기업에서 더 많은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연구 실험은 여성이 능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또한 여성끼리 돕고 격려해주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남성의 경우 자기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도 여성은 이런 것에 인색해요. 소수의 여성끼리는 서로를 더욱 아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여성 책임자들도 나오고, 그 실력을 심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정 박사 또한 여성 과학자로서 가정과 직업의 두 가지 어려움



과 고민이 적지 않았다. 그의 외동딸 또한 열 살 때부터 열쇠를 목에 걸고 등하교를 해야 했다. 때문에 그는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미국에서는 프리스쿨, 에프터스쿨처럼 자녀를 돌봐주는 책임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더군요. 아마도 이게 여성과학자에겐 큰 장애겠죠. 더군다나 많은 여성들이 이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멋진 엄마가 되는 것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 박사의 외동딸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엄마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일일교사의 자격으로 학교에서 과학강의를 한 후, 친구들이 정 박사를 ‘멋진 엄마’라고 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부모로서뿐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한 기업연구소의 책임자로, 한 아이의 엄마로, 한 사람의 과학기술자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 그것이 그가 세운 인생의 최대 목표다. ④